



수입사 짚막 인터뷰로 알아보는 KWC 2020 수상 와인 판매 동향

신동와인 SHINDONG WINE

신동와인 | 이수민 사원

베스트 USA 레드를 수상한 더 프리즈너 와인 컴퍼니의 데랑지 나파 벨리 레드 블렌드의 성장세가 돋보인다. KWC 2020 수상 이후 유통 및 소비 채널 판매량의 증가로 동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며 당사의 효자 와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로버트 몬다비의 버번 배럴 에이징드 샤르도네 역시 동년과 대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잘 익은 샤르도네와 버번의 향미가 어우러진 풀바디 화이트 와인으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북미 시장에서는 이미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 중에 있었다. KWC 2020에서 골드 메달을 수상하며 국내의 소비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 수상 와인

Best of USA Red The Prisoner Wine Company Derange Napa Valley Red Blend
Gold Robert Mondavi Private Selection Bourbon Barrel-Aged Chardonnay



VINO PARADISE

비노파라다이스 | 조지민 대리

라 리오하 알타 와인은 어디에 내놓아도 사랑받는 와인 브랜드이다. 하지만 브랜드의 다른 제품들이 품질 리스트에 오르는 등 화려한 관심을 받는 데 비해 비나 아라나 브랜드 내에서 살짝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KWC 수상으로 품질과 대중성을 인정받으면서, 이제는 베일에서 벗어나 품질 대란을 일으키는 브랜드의 주인공 대열에 합류했다. 매년 KWC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코알라 랜치 샤르도네를 두 번째 대표 와인으로 선정하고 싶다. 와인 생산자인 앤드류 피스는 이 와인의 판매 수의 일부를 호주 코알라 보호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KWC 수상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노출되면서 앤드류 피스의 좋은 취지가 알려지고 국내 와인 시장에서 '착한 와인'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 KWC 2020 골드 메달 수상을 바탕으로 품질까지 인정받게 되면서 가심비 좋은 와인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대표 수상 와인

Best of Spain Red La Rioja Alta S.A. Viña Arana Gran Reserva
Gold Koala Ranch Chardonnay



지난여름 코로나도 막지 못한 한가지가 있다면 바로 KWC 2020의 열기일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정된 수상 와인의 명예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수입사와의 짚막한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다.

글 박초롱 사진 장영수, Freepik 자료제공 각 수입사

Les Vins de Maeil

레뱅드매일 | 김태우 사원

KWC 2020에서 골드 메달을 수상한 라포스톨의 레드 블렌드가 2021년 3월부터 아팔타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2021년 5월까지 작년과 대비해 약 9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아팔타를 라포스톨의 주력상품으로 삼아 프로모션을 이어갈 예정이다. 역시나 KWC 2020에서 골드 메달을 수상했던 들라스 지공다스 레 레이나쥐의 성장세도 주목할만하다. 수상 이후 작년 대비 약 1,000%에 달하는 성장을 이뤘다. KWC 수상을 계기로 오프라인 중심의 다양한 채널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추세에 힘입어 추가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대표 수상 와인

Gold Lapostolle Red Blend (Clos Apalta)
Gold Delas Gigondas Les Reinages



WINELL

와이넬 | 김인경 팀장

2020년은 와이넬에게 있어 샤토 푸에슈오의 해였다. KWC 2020에서 트로피 로제를 수상한 아르갈리 로제와 베스트 프랑스 레드를 수상한 떠티 드 벨리에 루즈가 모두 샤토 푸에슈오의 와인이다. 2020년 개최 7회를 맞은 아트인더글라스의 주제 와이너리 역시 샤토 푸에슈오였다. 비록 행사는 연기되었으나, 당시의 연간 최고 이벤트인 아트인더글라스 테마 와이너리로 샤토 푸에슈오를 프로모션 하는데 KWC 수상 사실이 많은 도움이 됐다. 판매 실적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 자체적으로 전개한 판매 촉진 프로그램이 원동력으로 작용했지만, 'KWC 최고 수상 와인'이라는 타이틀에 힘입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 KWC 수상을 통해 프랑스를 대표하는 랑그독 부티크 와이너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 특히 아르갈리 로제의 경우 2019년 신규 출시와 동시에 KWC 2020 트로피 로제를 수상하며 국내 시장에 존재감을 알렸다.

대표 수상 와인

Trophy Rose Château Puech-Haut, Argali Rosé
Gold Château Puech-Haut, Tête de Bélier Rouge

